



소통·화합의 빛 세상 두루 밝히네

전통의 멋과 흥이 넘치는 등 잔치, 불기 2554년 연등회 연꽃축제가 장엄하게 회향됐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자승)는 5월 9일 장충체육관에서 연등축제의 열기를 노래·합성으로 모은 흥겨운 어울림마당을 개최한데 이어 15일 조계사 앞 우정국로에서 전야제인 연등놀이를 개최했다.

같은 곳에서 16일에는 불교문화마당이 펼쳐졌다. 불교문화마당에는 시민·외국인들이 한국 및 세계불교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120여 개 부스가 설치돼 운영됐다.

동국대 운동장에서는 연등법회를 병행하고 연등행렬을 준비하는 화합한마당이 열렸다.

봉축위원장 자승 스님은 개회사에서 "연등축제는 과거와 소통하는 동시에 오늘의 세상과 화합하는 축제"라며 "너와 나, 죄와 우, 남과 북이 갈라지고 대립해 왔던·갈등만이 가득한 어두운 세상에 소통의 등, 화합의 빛을 널리 펼치자"고 말했다.

행진선언으로 시작된 연등행렬에서는 화려한 장엄등과 깃발들, 수 만개의 깃가지 등이 종로 거리를 수놓았다.

글=조동섭 기자 · 사진=박재원 기자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장 자승 스님이 5월 16일 개최된 불교문화마당에서 관불의식을 하고 있다.



5월 9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어울림마당(왼쪽). 15일 연등놀이에서 연등단과 시민이 한데 어울려 축제의 한마당을 펼쳤다(위·아래).

불기 2554년 부처님 오신 날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특출한 인재를 양성하는 강한 대학

- VISION 1 인성/덕성 함양
- VISION 2 외국어(영·중·일) 교육 특화
- VISION 3 행정실습 교육 강화



계룡산 기슭에 자리한 **금강대학교**
성낙승 총장 외 교직원 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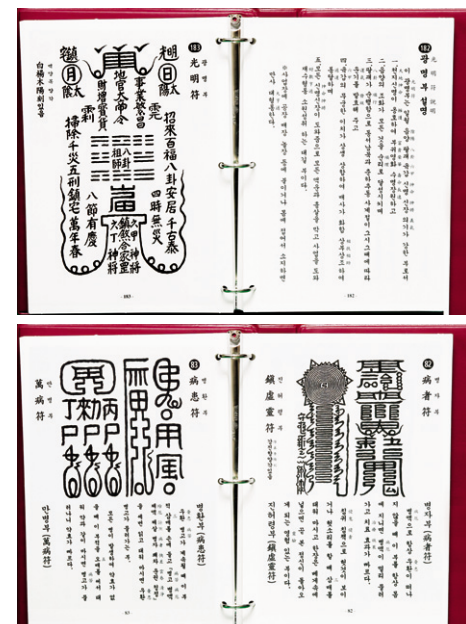
부적총만법 符籍總萬法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간한 부적책으로 한 획도 빠짐없이 특수 제작한 코팅된 서적으로 한 장씩도 빼내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원본 책입니다.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을 직접 선택하여 훼손하지 않으면서 바탕에 대고 쉽게 그릴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더욱 빠른 성취를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정가 80,000원
입금계좌 : (예금주 : 오의성)
국민은행 347802-04-16456 / 농협 35602-03-231853



등록번호 제301-2009-233
오남출판사 발행 오의성